



e스포츠학과 재학생들이 '2026 e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최종 선정을 축하하고 있다.

e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 사업

동양대 e스포츠학과, 실무형 교육 입증

동양대학교(총장 최재욱) e스포츠학과는 한국e스포츠협회(KeSPA)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이 주관하는 '2026 e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e스포츠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이번 사업 선정은 동양대학교 e스포츠학과가 지난 2023년부터 3년간 농심e스포츠와 함께 수행해 온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특히 2026년부터는 한국e스포츠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체계를 한층 확장하고 산업 연계성을 강화한 고도화된 교육 모델을 구축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당 사업은 단기 교육이나 비교과 프로그램은 넘어 4년제 정규 학위 과정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점이 특징이다. 학생들은 경기 운영, 전략 분석, 방송·중계, 콘텐츠 제작, 이벤트 기획, 마케팅, 산업 정책 등 e스포츠 산업 전반에 걸친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학습하며, 이를 대학 정규 교과 과정과 연계해 심층적으로 습득하게 된다.

동양대학교는 사업이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e스포츠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계형 실무 교육 운영 △현장실습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확대 △e스포츠 대회 및 콘텐츠 제작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대회와 연계한 실전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공전영 동양대학교 e스포츠학과장(사업 단장)은 "이번 사업 선정은 동양대학교의 교육 역량과 한국e스포츠협회의 산업 전문성이 결합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론 중심 교육을 넘어 산업 현장을 이해하고 주도할 수 있는 차세대 e스포츠 전문 인재 양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과 대학,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교육 모델을 구축해 국내 e스포츠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양대학교 e스포츠학과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4년제 정규 e스포츠학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한 e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기관이다. 실무 중심 교육과 산학 협력 기반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다.

나정식 기자 chsna86@hanmail.net

5월7일 구광 이천권역 채용博

총 230명 규모 대규모 인력 선발 예정

이천시는 5월7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구광 이천권역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이천 및 경기 광주권역 7개 센터가 참여해 총 230명 규모의 인력을 채용하는 행사로 현장관리자 및 물류사원 등을 모집할 예정이다. 구직자들은 현장에서 채용 정보 제공과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포스터 하단 QR코드를 활용한 사전 지원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이천시와 구광풀필

먼트서비스(CFS)가 지난 2025년 3월 체결한 '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당시 양 기관은 지역 내 맞춤형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구광풀필먼트센터와 연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는 지난해부터 현장실습을 병행하는 물류현장전문직 양성 과정(지게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채용박람회를 통해 협약의 실질적인 성과를 구직자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지역 일자리 연계 확대에도 힘을 기울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채용박람회는 지난해 3월 구광풀필먼트서비스와의 업무협약 이후 추진되는 실질적인 일자리 연계 행사"라며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일자리센터(031-632-191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원희 기자 kgdomin1@daum.net

농협정보시스템 농촌 일손돕기

화성시 기산동 농가서 農心天心 정신 실천



이른 아침부터 농촌 현장에 나가 구슬땀을 흘린 농협정보시스템 임직원들.

농협정보시스템(대표이사 도기운)이 22일 화성특례시 기산동 인근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일손돕기 활동에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총 20명이 참여해 수도작 파종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봄철 농번기를 맞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도심과 농촌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는 '농심천심(農心天心)'의 정신을 실천하는 자리가 됐다.

참가 임직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현장에 나서 농가 관계자들과 함께 모판, 씨비부터 파종까지 일련의 작업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했다.

농협정보시스템 도기운 대표이사는 "오늘 활동은 농업·농촌과 함께 성장해 온 농업의 정체성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동심협력의 자세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협정보시스템은 매년 농번기에 맞춰 임직원이 직접 농촌 현장에 찾아가 일손돕기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 발전과 지역 농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홍왕현 기자 wh8746@hanmail.net

여주 세무행정부서 환경개선

사계절 꽃으로 채우는 사무공간 조성



여주시 세무행정부서(세정과, 징수과)가 봄을 맞아 세정업무 담당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사무실 환경을 새롭게 단장했다.

여주시 세무행정부서(세정과, 징수과)는 봄을 맞아 세정업무 담당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사무실 환경을 새롭게 단장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은 기존 팀별로 조성되

어 있던 그린 공간에 사계절 활용 가능한 조화를 추가 설치하여 계절에 구애받지 않는 쾌적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특히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과하지 않은 디자인을 적용해 사무공간에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더했으며 팀별 공간 특성에 맞춘 맞춤형 배치를 통해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이루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감과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조직 내 활기찬 분위기 조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방문 민원인에게도 밝고 정돈된 이미지를 제공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윤광희 세정과장은 "작은 변화이지만 직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조직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희 기자 kgdomin1@daum.net

통합돌봄과·의료돌봄팀 신설

성남시, 초고령사회 대응 조직 개편 단행

성남시가 보건·의료·복지를 연계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22일 시청에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수정·중원·분당 3개 구 보건소에 '의료돌봄팀'을 설치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지역 기반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복지국 노인복지과 내 팀 단위로 운영되던 통합돌봄 기능은 과 단위로 격상됐으며 전담 인력도 3명에서 12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통합돌봄과는 돌봄정책·지원·사업 등 3개 팀으로 구성돼 정책 기획과 서비스 연계를 총괄한다. 아울러 3개 구 보건소에 신설된 의료돌봄팀은 총 6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해 퇴원 환자와 생애 말기 환자를 중심으로 재가 의료 서비스를 집중 관리한다. 병원

치료 이후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고령층의 돌봄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성남 지역 65세 이상 돌봄 필요 대상자는 3만6014명에 달한다. 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이들의 의료·요양·돌봄 수요를 평가하는 '통합 돌봄 판정 체계'를 도입하고 병원 입원과 재가 돌봄의 경계에 있는 대상자를 선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돌봄 서비스를 연계한 '성남형 통합돌봄 안전망'을 구축,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오인기 기자 news112@hanmail.net

화성시 청년창업 컨설팅 지원

전문가 1:1 매칭으로 시행착오 최소화

화성특례시는 6월30일까지 '2026년 청년창업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화성특례시 청년(예비)창업자에게 외부 전문가의 창업 코칭과 멘토링을 지원해 창업 초기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신청 대상은 화성특례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부터 39세까지의 관내(예비)창업자로 온라인 '잡아바 어플라이(apply.

jobaba.net)'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참여자는 △상권분석 △경영진단 △유통 △마케팅 △정부 지원 사업 △법률 등 희망 분야에 대해 전문 컨설턴트와 1:1 맞춤형 컨설팅을 총 2회 지원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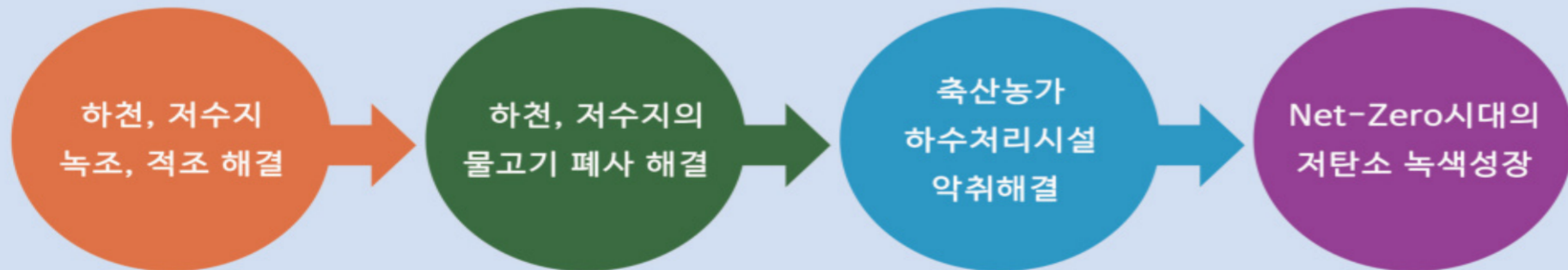
이병희 청년청소년과장은 "화성시 청년 창업자들이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왕현 기자 wh8746@hanmail.net

바이오벤처코리아는 독자적인 기술과 자연재생 감성의 시너지를 통하여 인간의 삶에 편리와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미생물(SUBION®) 기본 솔루션



- ※ 솔루션 진행 중인 저수지와 하천
- 군포 반월호수, 갈치호수
 - 평택시 배다리 호수, 모산 저수지
 - 인천시 해오름 호수, 늘솔길 저수지
 - 영종도 전소천

바이오벤처코리아(주)
 문의전화 : 032-525-2001
 bv21@biovankorea.com
 나라장터 쇼핑몰 식별번호 : 25055048(산업용탈취제)
 24907208(가축용보조사료)

검색창에 "바이오벤처코리아"을 검색하세요